

“겨울방학, 미술관서 놀자”

■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 강좌

“방 안에 틀어박혀 인터넷 게임만 하는 우리 아이에게 권할만한 프로그램이 없을까?”

방학이 시작되면 대다수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에 끌 빠져 될까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올 겨울에는 아이들에게 미술과 친해지는 계기를 만들어 주자.

지난 10월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개관한 광주 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의 어린이 미술관이 겨울 방학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표 참고)을 개설, 수강생을 맞는다.

이번 겨울 강좌는 48개월 유아에서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보고·만지고·느끼고·표현할 수 있는 30여 개의 미술 프로그램으로 3개월 동안 열린다.

만지고 느끼고… 미술과 친해지기

체험활동 위주 30개 프로그램 개설

시립미술관이 의욕적으로 내놓은 ‘FITE’(Fun, Innovative, Total, Experience Art Education)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미술을 통해 디자인·문화 등을 이해하고 세상을 배우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잡지 사진을 활용해 서로 다른 눈·코·입을 조합해 얼굴을 만들고, 서로 다른 색깔이 칠해진 나무 탑을 쌓으며 컬러에 대한 각각 등을 배우게 된다.

‘방학 실기특강’은 미술관이 선정한 화가들로부터 집중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나만의 책 만들기, 캐릭터 그리기, 드로잉 기초 등으로 꾸려졌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미술놀이를 하는 프로그램인 ‘엄마랑 아이랑’은 하바·가베고구를 가지고 놀면서 색감을 키우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다양한 그림책도 볼 수 있다.

‘유아 문화교실’은 5~7세 유아 혼자서 기본 색 배합·모형 만들기·접·선·면 이해하기 등을 배우며 ‘어린이 문화교실’은 풍경화·평면 디자인·지레·도르래 등 생활 속 도구 만들기·도형의 분활과 조화 등으로 꾸며진다.

‘매천황현문학상’ 최승범·박주관씨

(사)한국 지역문화인 협회(이사장 황학하)가 주관하는 ‘매천황 현문학상’ 대상에 시인 최승범, 본상에는 시인 박주관씨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27일 오후 4시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열린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광주시립미술관 주요 겨울방학 프로그램

유아	‘엄마랑 아이랑’ (48개월 이하) 유아문화교실 (5~7세)	하비미술놀이, 아미데우스 클래스, 그림책 여행, 가페놀이 레고 액션휠리, 캘리믹스, 기초과학
초등	어린이 문화교실 FITE (초1~3)	수채화교실, 하모니카, 미술교실, 철학적놀이감 창작실기, 이론 및 감상, 디자인 문화감각
주말	나의봄,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만들기, 아로마 목욕제 만들기	
초·중·방학특강	복리동, 만화, 드로잉	



26일 광주시립미술관의 어린이미술관에서 월곡지역 아동센터 어린이 40여명이 천연비누를 만드는 과정을 체험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nj@kwangju.co.kr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인 ‘놀토’에 열리는 ‘토요 프로그램’은 취미·과학강좌로 나뉘어 양초만들기·밸런타인데이 초콜릿 만들기·화화반응 알아보기 등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별로 3~10만원의 재료비를 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저소득층은 1개 강좌에 한해 무료다. 접수 마감은 29일까지, 개강은 내년 1월 2일.

일.

변길현 학예사는 “어린이 미술관 개관을 맞아 미래 문화애호가를 길러낸다는 의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했다”면서 “특히 저소득층과 가족이 함께 마음껏 놀 수 있도록 미술관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문의 062-510-024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이태백 단장 재위촉 보류

박호진 소년소녀합창단장 재위촉

금노상 시립교향악단장은 해촉

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단원 채용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이태백 단장의 경우 경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재위촉 여부를 보류키로 했으며 2년의 임기를 마친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박호진 단장은 재위촉기로 결정했다.

조례상 시립예술단체장의 임기는 2년이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31일로 임기가 끝나는 광주시립교향악단 금노상 지휘자를 재위촉하지 않기로 하는 등 3개 단체단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시립 단체의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광주문화회관은 26일 “2년간 교향악단은 이끈 금 지휘자는 해

촉하기로 결정했으며 교향악단은 1년간 각원 체제

신조어로 본 2007년

삼태백·짝퉁학위·쌀국장…

신정아 가짜학위 파문 등 이슈…취업난·대선정국 등 사회상 반영

삼태백, 장미족, 짝퉁학위, 영어 난민, 안습펀드….

올 한해도 많은 신조어들이 등장하며 급변하는 사회상을 반영했다. 2000년 이후 매년 신조어 조사 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올해 5월부터는 주간 단위로 신조어를 조사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 우리 사회의 특징적인 현상과 변화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333개(5월~12월 셋째주)의 국립국어원 선정 신조어들을 통해 2007년을 뒤돌아본다.

◇2007년 주요 사건·사고들= 올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주요 이슈들은 다양한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가짜학위 파문에서 출발된 일련의 학력 위조 사건들은 위·변조된 ‘짝퉁 학위’로 기사들에 빠져나온다.

사람을 가리키는 ‘장미족’, 어학연수나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영어 난민’, 펀드를 가리키는 ‘장미족’, 어학연수나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영어 난민’ 등 취업난과 무관치 않다.

◇재테크 열풍과 대선정국=코스피지수가 2천선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펀드를 중심으로 주식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수익률이 나빠 안타깝게 만드는 펀드를 가리키는 ‘안습’(안구에 습기차다) 펀드, 무자자자가 불법으로 투자 자금을 끌어모으는 ‘짝퉁 펀드’ 등도 펀드 열풍의 뒤편에서 새로 생겨난 말들이었다.

하반기 국내 증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자 미국 증시를 낮춰 부르는 ‘쌀국장’이라는 말이 인터넷상에서 쓰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시립미술관 양산동·팔각정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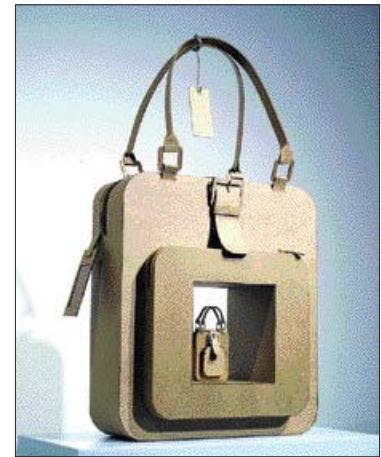
젊은작가들 예술 열정

광주시립미술관의 양산동·팔각정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들이 연말과 신년 잇따라 전시회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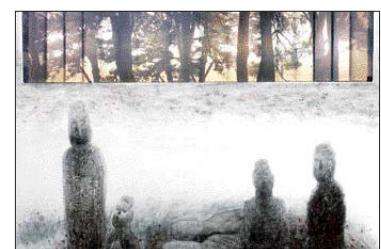
양산동창작스튜디오는 내년 1월 19일까지 광주시 동구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2006-2007 양산동창작스튜디오’전을 연다. 참여 작가는 고재근·김일근·노정숙·박도승·이상목·정상무·황지영 등 14명이다.

지난 2년 동안 창작스튜디오에서 활동한 작가들의 고유 작품 세계를 담은 작품들이 선보이며 창작스튜디오 활동을 소개한 책자도 500부 발간,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일근 작 ‘가짜 그리고 쇼핑’



오창록 작 ‘혼적-염원’

광주전남작가회의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카페’

(사)광주·전남민족문학작가회의가 27일 오후 6시30분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제5회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카페’를 개최한다.

작가의 일대기와 담긴 앨범을 공개할 예정이다.

가수 정용주씨는 ‘시인과 함께 부르는 노래’로 음악편지를,

시인 이지답씨는 문학편지 코너에서 ‘고백’을 주제로 대답을 펼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매천황현문학상’ 최승범·박주관씨

(사)한국 지역문화인 협회(이사장 황학하)가 주관하는 ‘매천황 현문학상’ 대상에 시인 최승범, 본상에는 시인 박주관씨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27일 오후 4시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열린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매천황현문학상’ 최승범·박주관씨

(사)한국 지역문화인 협회(이사장 황학하)가 주관하는 ‘매천황 현문학상’ 대상에 시인 최승범, 본상에는 시인 박주관씨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27일 오후 4시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열린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매천황현문학상’ 최승범·박주관씨

(사)한국 지역문화인 협회(이사장 황학하)가 주관하는 ‘매천황 현문학상’ 대상에 시인 최승범, 본상에는 시인 박주관씨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27일 오후 4시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열린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매천황현문학상’ 최승범·박주관씨

(사)한국 지역문화인 협회(이사장 황학하)가 주관하는 ‘매천황 현문학상’ 대상에 시인 최승범, 본상에는 시인 박주관씨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27일 오후 4시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열린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매천황현문학상’ 최승범·박주관씨

(사)한국 지역문화인 협회(이사장 황학하)가 주관하는 ‘매천황 현문학상’ 대상에 시인 최승범, 본상에는 시인 박주관씨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27일 오후 4시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열린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매천황현문학상’ 최승범·박주관씨

(사)한국 지역문화인 협회(이사장 황학하)가 주관하는 ‘매천황 현문학상’ 대상에 시인 최승범, 본상에는 시인 박주관씨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27일 오후 4시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열린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매천황현문학상’ 최승범·박주관씨

(사)한국 지역문화인 협회(이사장 황학하)가 주관하는 ‘매천황 현문학상’ 대상에 시인 최승범, 본상에는 시인 박주관씨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27일 오후 4시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열린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매천황현문학상’ 최승범·박주관씨

(사)한국 지역문화인 협회(이사장 황학하)가 주관하는 ‘매천황 현문학상’ 대상에 시인 최승범, 본상에는 시인 박주관씨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27일 오후 4시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열린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매천황현문학상’ 최승범·박주관씨

(사)한국 지역문화인 협회(이사장 황학하)가 주관하는 ‘매천황 현문학상’ 대상에 시인 최승범, 본상에는 시인 박주관씨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27일 오후 4시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열린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매천황현문학상’ 최승범·박주관씨

(사)한국 지역문화인 협회(이사장 황학하)가 주관하는 ‘매천황 현문학상’ 대상에 시인 최승범, 본상에는 시인 박주관씨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27일 오후 4시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열린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매천황현문학상’ 최승범·박주관씨

(사)한국 지역문화인 협회(이사장 황학하)가 주관하는 ‘매천황 현문학상’ 대상에 시인 최승범, 본상에는 시인 박주관씨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27일 오후 4시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열린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매천황현문학상’ 최승범·박주관씨

(사)한국 지역문화인 협회(이사장 황학하)가 주관하는 ‘매천황 현문학상’ 대